

참된 생명에 이르는 지혜 6

I. 서론

16장은 10-15장과 신학적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본장에 와서 여호와와의 ()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활동과 은밀한 마음속까지 감찰하며 주장하시는 분이다. 17장은 16장보다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가르침을 모아 두었다. 장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주제는 없으며 화목한 가정, 지혜로운 지도자, 악인과 어리석은 자들의 비교 등 여러 가지 말씀을 나열하고 있다. 18장은 말과 행실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의 말과 행동의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II. 본문: 솔로몬의 지혜 모음집 후반부(잠언 16:1~22:16)

16. 지혜 모음집 후반부의 시작(잠 16:1-33)

본 장은 잠언의 중심에 위치하며 16장 17절 말씀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는 책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다.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 전반부(10-15장)가 대체적으로 한 절 안에 악인과 의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등 상반되는 가르침으로 구성된 반면, 후반부(16-22장)는 동의하는 가르침(한 절 안에서 내용이 비슷한 원리를 제시)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혜의 근원인신 ()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잠언의 초반부(1-9장)를 연상하게 한다.

1) 하나님과 인간의 기본적 관계(16:1-9)

본 단락에서 8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호와를 언급한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까지 인간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지혜를 다뤘다면, 본 단락에서는 하나님과의 ()에서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 5-9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자세와 결과’를 서술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1절)

(2)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2절)

(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3절)
 ** ①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 모든 일을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해야 한다. 세상 모든 일이 () 아래 있기 때문이다. ② ‘여호와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적 생각의 지표, 즉 우리의 관점이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선하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 있다. ③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속적이고 겸손한 기도를 통해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관점과 ()로 일하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인 것이다.

(4)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음

(5) 마음이 교만한 자 → 여호와께서 미워하심, 서로 손을 잡을 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함

**의인이든 악인이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악인들에 대한 ()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연합해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피할 수 없다.

(6) 인자와 진리 → 죄악을 속하게 함,
 여호와를 경외함 → 악에서 떠나게 됨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되게(성실하게) 사는 이들의 죄를 덮으신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다.

(7)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7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 원수조차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다.

(8)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8절)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소득보다 공의로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을 기뻐하신다.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9절)

**솔로몬은 인생을 ‘길’과 ‘걸음’으로 비유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

2)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에 대한 가르침(16:10-15)

본 단락부터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의 지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 단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설명한 것에 이어 본 단락에서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삶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에 대한 내용이다.

(1)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왕의 권위(10-11)

- 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음,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할 것임
- ②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와 것임,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임

****왕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 있어야 한다. 왕의 입이 그르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왕이 항상 무오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의 공의의 대리자로서 본인의 직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도덕성과 공의(12-13)

- ① 왕은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해야 함, 왕의 보좌는 ()로 말미암아 굳게 씌

②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임,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왕들의 사랑을 입을
****왕은 무엇을 '미워'할지, 무엇을 '기뻐'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왕은 사소해 보이는 불의도 미워해야 하며, 귀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신하들의 의롭고 정직한 말을 기뻐해야 한다.**

(3) 사람의 삶과 죽음에 영향을 끼치는 왕의 법적 행위(14-15)

- ①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함
- ② 왕의 희색은 ()을 뜻함, 그의 은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음

****① 고대 왕에게는 사람의 생사를 결정짓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으므로, 왕의 ()는 곧 죽음을 부를 수 있었다. 그러나 ()는 왕의 무서운 진노마저 가라앉힐 수 있다. ② '왕의 희색'이란 왕의 얼굴에 있는 빛을 말하며, 왕의 얼굴에 빛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③ 9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내리는 비는 '이른 비'로 흙을 부드럽게 적셔 밭을 갈 수 있게 해주며, 12월부터 3월까지 내리는 비는 '겨울비'로 사람들은 건기에 대비해 물을 저장해 두었다. 본 절의 '늦은 비'는 3, 4월경에 내리는 곡식을 영글게 하는 비로 하나님의 복과 ()를 상징했다. 왕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백성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금보다 나은 지혜(16:16-19)

본 단락은 잠언의 첫 부분인 1-9장에 사용된 단어들이 반복하여 나오고 있다.

(1) 지혜와 명철이 먼저임(16)

①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나음

②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음

**지혜가 재물이나 보화보다 더 낫다는 것은 재물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훨씬 귀하다는 뜻이며, 더 나아가 재물도 지혜의 결실로 습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잠언의 중심 말씀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며, 악을 행하는 것은 (), 하나님께 버림받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라(18-19)

①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교만한 자는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눈을 하나님과 사람들 위에 두다가 결국 엎드러진다. 거만한 자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라는 조언을 거부하여 영원한 파멸을 자초한다.

②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음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기보다는 차라리 압제 당하는 편이 더 나음을 가르치고 있다. 아울러 경제적 득실에 상관없이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부정한 이득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 것을 당부한다.

4) 선한 말의 지혜로움(16:20-24)

선한 말, 즉 신중하고 지혜로운 말의 유익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이다.

(1) 여호와를 의지하라(20)

①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말씀에 대해 이해하는 자를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조심히 행동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게 된다.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속에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 즉, 말씀을 ()하는 삶이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2)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21-24)

①마음이 지혜로운 자 →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음: 공동체 내에서 존경을 받음

②입이 선한 자 → 남의 화식을 더하게 함 : 선한 가르침은 유익을 줌

③명철한 자 → 그 명철이 ()이 됨 :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원동력을 준다

④미련한 자 →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됨 : 어리석음으로 인해 ()를

자초함

⑤ 지혜로운 자의 마음 → 입을 슬기롭게 함, 입술에 지식을 더함: 말은 곧 내면을 반영함

⑥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24절)

**“선한 말”은 ‘유쾌한(즐거움) 말’이라는 뜻으로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이 담긴 말을 가리킨다. 또한 ‘양약’은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뿐 아니라 그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곧 선한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과 뼈 곧 영적, 육적 측면 모두 ()과 원기를 북돋아 준다는 의미이다.

5) 악한 말의 맹렬함(16:25-30)

본 단락에서는 악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네 분류로 제시한다. ‘불량한자’(27절), ‘패역한 자’(28절), ‘()’(28절), ‘강포한 사람’(29절)이다. 30절은 29절 ‘강포한 사람’에 대한 부가적인 언급이다.

(1)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25절)

**이 단락의 첫 번째 교훈은 자신의 감각과 ()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라는 경고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길은 분명 바른 길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때가 있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허기진 배는 싫어하는 일도 하게 함, 입이 그를 독촉하기 때문

**식욕이 삶의 강력한 추진제 역할을 하며,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노력이 필요함을 가르친다.

(3)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함,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음

(4) 패역한 자 → ()을 일으킴,

말쟁이 → 친한 벗을 ()함

(5) 강포한 사람 → 이웃을 꾀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함

**① ‘불량한 자’는 윤리적, 신앙적 측면에서 타락한 사람이다. 이들이 악을 꾀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덮어주시지만, 불량한 자들은 숨겨져 있는 것까지 들추어낸다. 이들의 말은 불같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힌다. ② ‘패역한 자’는 정상적인 바른 길을 벗어난 사람이다. 이들은 적절하지 않은 말을 골라 듣는 이들을 자극하고 결국 싸움이 일어나게 한다. ③ ‘말쟁이’는 투덜거리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누구를 만나든 계속 불만을 토로하기에 결국 친한 친구들도 이간시킨다. 이들의 가장 큰 죄는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④ ()은 폭력적인 사람을 말하는데, 지혜로운 자들은 이러한 사람을 멀리한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꾀에 넘어올 어리숙한 사람을 찾아 유혹한다. 이들이 가는 길은 폭력과 죽음이 있을 뿐이다.

(6) 눈짓을 하는 자 → 패역한 일을 도모, 입술을 닫는 자 → 악한 일을 이름

****본 절(29절)**은 ‘강포한 사람’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이들은 ‘()’(남을 속이기 위해 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것)과 ‘입술을 닫음’(입술을 깨물며 악한 일의 실행을 다짐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악을 계획한다. 악을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실질적인 악에 빠진 것이다.

6) 지혜의 가치(16:31-33)

(1)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공의로운 길에서 얻을 것임(31)

****‘백발’**은 장수의 상징이다. 구약에서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다. 신약에서는 구원을 받아 ()하는 것이 가장 큰 ()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축복은 평생 ()을 성실함으로 걷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이다.

(2) 마음 다스림의 중요성(32)

①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 용사보다 나음

②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음

****자기 절제**(①노하기를 더디 함, ②자기의 마음을 다스림), 즉 자기 정복은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사람(①용사, ②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자기를 ()하는 능력이 가장 높은 차원의 능력이며 이러한 인격 형성과 유지는 ()에 그 인격의 기초를 둘 때 가능한 것이다.

(3)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33절)

****제비를 뽑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한다.

17. 배부른 것보다 지혜와 평화가 우선함(잠 17:1-28)

16장은 주제가 잘 정돈되어 있는 것에 비해, 본장은 여러 격언들이 뒤섞여 있다. 대표적인 두 주제로 정리해보면 ①다툼에 관한 것과 ②가정에 관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본장은 구체적인 생활 속에 지혜를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화목한 가정(17:1-6)

(1)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음

****풍부한 재물은 종종 도덕적, 윤리적 감각을 흐트러뜨리고 다툼을 유발한다.** 온갖 산해진미를 먹는다 해도 가정에 화평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2) 슬기로운 종

①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림

②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을 것임
 ** 종이 가족의 유산을 차지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지혜가 있다면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지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3)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을 연단함
 ** 도가니와 풀무가 금속들을 제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다루신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온전한 존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4) 무엇에 귀를 기울이는가?

- ① 악을 행하는 자 →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들음
- ② 거짓말 하는 자 →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임

(5)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교훈

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 그를 지으신 ()하는 것임
 ** 경제적인 이유로 남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연결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②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 ()을 면하지 못할 것임
 **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기뻐하는 것은 곧 악한 것이며,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태도에 대하여도 심판하신다.

(6)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화니라”(6절)
 ** 할아버지에서 손자에 이르는 삼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이는 단지 삼대를 넘어 모든 세대가 다음 세대를 ()하고 ()하게, 또한 자손 대대로 여호와를 ()하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2) 지혜로운 지도자(17:7-10)

(1) 말에 격이 있어야 함(7)

①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이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② 거짓말을 하는 것은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음
 *** ‘지나친 말’, 즉 격이 있고 탁월한 말이 미련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존귀한 자들에게는 거짓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존귀한 사람은 ()을 해야 하며, 거짓말을 해서 미련한 자들처럼 천박한 삶을 살지 말라는 권면이다.

(2) 뇌물은 그 입자가 보기에 보석 같음,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함(8)

**뇌물은 그 임자(주는 자)가 보기에 보석 같다. 보석이란 신비한 물건을 말한다. 뇌물을 잘 사용하면 신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이제까지 솔로몬이 말한 정직하고 의로운 삶과는 동떨어진 말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뇌물을 통해 일시적으로 형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니 잠깐의 유익을 위해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 이웃을 허물을 덮어줘야 함(9)

- ① 허물을 덮어 주는 자 → ()을 구하는 자
 ②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 →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

(4) “한 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 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10절)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단 한마디의 합당한 책망으로도 겸손하여지고 그 책망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있으나 ‘미련한 자’는 자신의 지식과 처신을 합리화시켜 도리어 만족스러워하기에 타인의 지적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매를 맞아도 돌이키지 않는다.

3) 악인과 어리석은 자들(17:11-16)

반역을 도모하는 자는 반드시 철저한 보응을 당한다는 내용이다. ‘잔인한 사자’가 의미하는 것은 ①왕이 자신에게 대적하여 반역하는 자를 멸망시키기 위해 보낸 사신, ②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범죄하기를 일삼는 자를 심판하시는 폭풍이나 질병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이다.

(1) 악한 자 → 반역만 힘쓰 →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을 것임

(2)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아야 함

**미련한 자의 행위는 새끼를 빼앗겨서 극도로 사나워진 곰의 잔인함보다 더 잔혹하며 파괴적이다. 미련한 자는 명철한 자와 대조를 이루며 혼계를 거부하고 무례하며 성을 잘 낸다. 이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3)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13절)

**선을 선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초래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성도들은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을 넘어, 악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써 악을 이겨야 한다.

(4) 다툼의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함

(5)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심

**선악간의 판단을 뒤집어 놓아 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여호와와의 철저한 징벌을 당할

것이다.

(6) 미련한 자는 지혜를 바라는 마음이 없으므로 돈으로 지혜를 함

4) 우정과 보증(17:17-22)

(1) 진실한 관계(17)

① 친구 →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

② 형제 →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음

**진정한 친구는 형제 관계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랑이 끊이지 않고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친구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늘 함께하며 도움을 주며 사랑이 결여된 매정한 혈육 관계보다 훨씬 더 강한 결속력을 보인다.

(2) 지혜 없는 자 →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됨:

()

(3) 다툼을 좋아하는 자 → 죄과(범죄)를 좋아함 :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성향

(4) 자기 문을 높이는 자(소유에 대한 교만) → 파괴를 구하는 자임: 파멸을 자초함

(5) 마음이 굽은 자 → 복을 얻지 못함 : 행복을 누리지 못함

(6) 혀가 패역한 자 → ()에 빠짐 : 결국 심판을 받음

(7) 미련한 자를 낳는 자 → ()을 당함, 미련한 자의 아버지는
낙이 없음(21)

**21절과 25절은 자녀 양육의 실패에 관한 주제로 수미쌍관을 이룬다. 미련한 자녀는 부모의 징계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가 된다.

(8)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22절)

**“뼈를 마르게 함”: 뼈는 힘의 근원이다. 뼈가 마른다는 것은 목숨을 지탱할 힘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며 죽음을 의미한다. ()은 곧 삶을 지속적으로 쇠퇴하게 하며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5) 정의로운 판결(17:23-28)

자녀 양육 실패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소단락 중간에 뇌물을 받는 ‘악인’이 언급된다. ‘악인’은 21, 24, 25절의 ‘미련한 자’를 윤리적 용어로 지칭한 것이다.

(1) 악인 →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함

**뇌물로 인해 판결이 불공정하게 내려지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것 중의 하나이다.

(2)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고,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둠

(3) 미련한 아들 → 아버지의 근심, 어머니의 고통이 됨

****미련한 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가까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지혜를 추구하는 명철한 자와는 달리, 멀리 있어 얻을 수도 없는 ()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며 자신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줄로 착각하여 부모의 훈계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행동함으로써 부모에게 근심을 끼친다.**

(4) 의인을 벌하는 것,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 선하지 못함
****무죄한 자와 정직한 자를 벌하는 것은 사회 기강과 도덕성을 흐트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일로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5) () → 지식이 있음, 성품이 냉철한 자 → 명철함
 (6)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28절)**

****침묵은 지혜로움의 한 증거가 된다.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차라리 침묵하면 자신의 무지나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대체로 자신의 언어를 제어하지 못할 때가 많다.**

18.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잠 18:1-24)

잠언에서 이제까지 말과 행실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것처럼 본 단락도 말과 행실에 신중한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다. 특히 지혜를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공동체라는 틀을 염두에 두고 삶의 방식과 관련된 지혜를 설명하고 있다.

1) 미련한 자와 악한 자(18:1-11)

본 단락은 미련한 자에 대한 실상을 다양한 표현과 양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솔로몬은 미련한 자의 본질과 삶의 결과를 집중적으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지혜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 단락에서 발견되는 것은, ①미련한 자의 가치관은 () (1, 2, 8절). ②미련한 자는 객관적인 ()한 사람이다(5, 6절). ③미련한 자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에 있어서 () (9절)는 것이다.

(1) 악인의 독선과 권력 남용의 위협(1-5)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도록 창조하셨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잇속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들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이다. 교만한 자는 공동체에서 스스로 자신을 따돌리고, 미련한 자는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받는다. 교만한 자나 미련한 자 모두 공동체에서 ()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람은 악을 동반하며 멸시와 능욕을 당하게 된다.

- 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 자기 () 을 따르는 자,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함
- ② 미련한 자 → 명철을 기뻐하지 않음,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함
- ③ 악한 자 → 멸시가 따르움, 부끄러운 것 → () 도 함께 음

④명철한 사람의 말 → 깊은 물과 같음, 지혜의 샘 →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음
 ***'명철한 사람의 말'의 원어는 일반적인 사람의 말을 의미한다. 사람의 말이 깊은 물과 같다는 것은 말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 의중을 잘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혜의 샘은 참신하고 유익한 사상의 지속적인 원천이 된다. 사람의 말은 깊은 물처럼 음흉하여도 솟구쳐 흐르는 지혜의 샘은 모든 것이 투명하다는 것이다.

⑤악인을 두둔하는 것,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 선하지 않음
 ***공의를 왜곡시키는 악행은 매우 사악한 것이다.

(2) 미련한 자의 입으로 인한 자신과 이웃의 패망(6-9)

①미련한 자의 입술 → ()을 일으킴, 그의 입 → 매를 자청함

②미련한 자의 입 → 그의 멸망이 됨, 그의 입술 →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됨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므로 항상 다툼과 갈등의 중심에 있게 된다. 이러한 자는 스스로 밧을 놓는 멸망의 삶을 살아간다. 남들이 공격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망하게 한다.

③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감

④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 패가하는 자의 형제임

***하나님은 성실히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실히 창조하신 것들을 파괴하는 자다. 이들의 게으름은 결국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

(3) 의인과 악인의 삶의 기반(10-11)

①“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10절)

②“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11절)

***여호와 안에서 찾는 참된 안전과 재물에게서 기대하는 거짓 안전을 대조하고 있다. 건전한 방법과 부지런한 노력으로 얻는 재물은 큰 힘이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경건한 신앙을 배제한 채 재물만을 의지하는 것은 ()을 쌓는 것과 같다.

2) 말과 다툼(18:12-19)

본 단락에서부터는 더 이상 미련한 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툼과 말에 관한 주제로 전환한다. 명철한 자는 공의를 존중하고 다툼을 해결하며 여러모로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한다.

(1) 바른 마음가짐의 중요성(12-15)

①“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12절)

②“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13절)

③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김,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몸을 일으킬 수 없음

④명철한 자의 마음 → 지식을 얻음, 지혜로운 자의 귀 → 지식을 구함

(2) 평화로운 인간관계의 유지(16-19)

① 사람의 선물 → 그의 길을 넓게 함,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함

**선물은 뇌물과 달리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이다. 선을 베푸는 것은 또 다른 선을 불러온다. 이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뇌물과는 다른 것이다.

② 송사에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힐 것임

③ 제비 뽑는 것 → 다툼을 그치게 함,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함

**판결에 신중하라는 것, 합의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것, 모두 자기중심이 아니라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④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움, 산성 문빚장 같음

**노엽게 한 형제와 다시 이전과 같이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관계를 쉽게 깨지 말아야 한다.

3) 말의 열매(18:20-24)

(1) 말의 중요성(20-21)

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됨,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됨

②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 를 먹음

(2)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조건(22-24)

① 아내를 얻는 자 →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임

②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함

③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24절)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신중함이 필요하다. 단순히 많은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진실된 한 명의 친구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다.